

### 태극전사, 완전체로 월드컵 준비



## KOREA REPUBLIC NATIONAL FOOTBALL TEAM FIFA WORLD CUP QATAR 2022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이날 '캡틴' 손흥민의 합류로, 완전체가 됐다. /연합뉴스



## 손흥민 “잊지 못할 월드컵 만들겠다”

검정 마스크 착용 ... 밝은 표정으로 대표 팀 훈련 참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고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출전 의지를 불태운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마침내 카타르 땅을 밟았다. 손흥민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0시 44분께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26명의 태극전사 중에는 마지막으로 카타르에 도착했다. 어두운색 코트를 입고 검은 빨데 안경을 쓴 손흥

민은 아직 왼쪽 얼굴 붓기가 다 빠지지 않은 모습이였다. 손흥민이 등장한 순간 공항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이제 잘 왔으니 몸을 잘 만들어 선수들과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릴 것은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항상 말했듯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팬들 앞에서 손흥민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흔들고는 차에 타고 대표팀 숙소인 도하 르메르디앙 호텔로 이동했다. 손흥민은 이날 2일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 중 안와 골절상을 당해 이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얼굴 보호대를 착용하고서라도 월드컵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벤투 감독은 가까이에서 손흥민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합류로 모든 퍼즐이 맞춰진 벤투호는 마지막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팀은 16일엔 입성 이후 처음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간 오후 4시)에 훈련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이날은 최종 엔트리 중 25명이 팀 합류를 완료한 가운데 훈련장에 전원이 나왔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이 좋지 않은 김진수(전북)와 황희찬(울버햄프턴), 전날 오후와 밤에 도착한 황인범(올림피아코스)과 김민재(나폴리)는 동료들과 같은 운동을 소화하지 않은 채 사이클로 가볍게 몸만 풀었다. 회복 위주의 첫날 훈련을 미디어에 전체 공개했던 벤투호는 이날부터는 초반 15분만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대부분의 인원이 집결한 만큼 이제 24일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 대비한 필승 전략 다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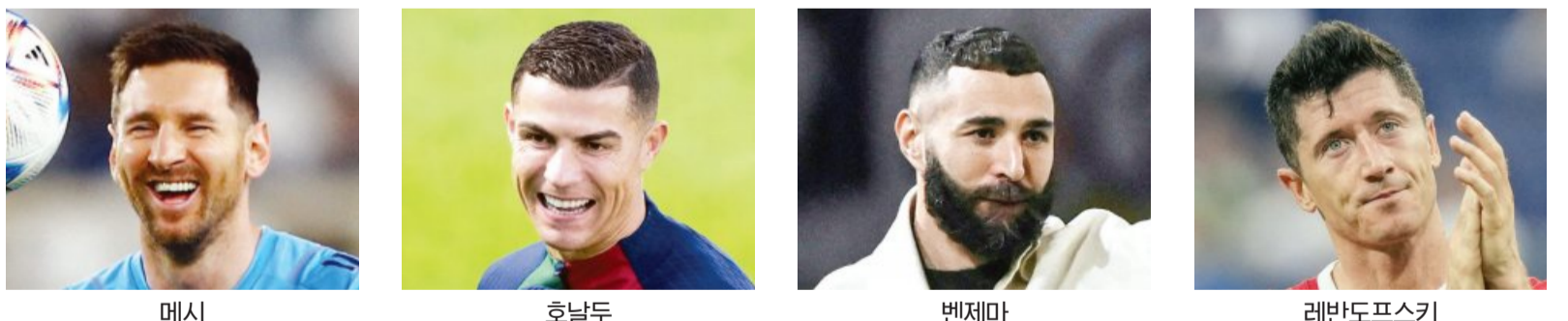
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황인범은 “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다.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며 “팀으로서 남은 기간 잘 다듬는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희망을 드리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벤투호에서 유일하게 ‘미합류’로 남은 선수는 주장 손흥민(토트넘)뿐이다. 안와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손흥민은 현지시간 16일 0시 5분께 도하에 입성해 벤투호에 힘을 신는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 김민재(나폴리)는 “흥민이 형은 모두가 아시아시피 팀에 중요한 선수다. 어떤 팀과 대결해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믿고 있다”며 캡틴의 합류를 환영했다. /연합뉴스

### 만만한 팀 없는 H조... ‘유럽파 정보’ 큰 힘

대표 팀에 유럽리그 소속 8명  
상대했던 선수들의 장단점  
동료들과 공유하며 대회 준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H조에서 각 대륙의 강호들과 격돌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나라인 포르투갈,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와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로 대표되는 우루과이 모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위 안팎의 세계적인 팀이다. 이런 만만치 않은 대진에서 기량만큼이나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합류한 벤투호의 유럽파 선수들이 자신의 큰 무대 경험을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전할 참이다. 이번 대표팀에 현재 유럽 리그 팀 소속 선수 총 8명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에서 이강인(마요르카)이 활약 중이며, 수비의 핵심 김민재(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성(마인츠)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비고 있고, 황의조와 황인범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한숨을 먹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

언스리그(UCL)나 유로파리그 등 유럽 대항전에서 다른 리그의 다양한 선수들과 맞붙는 경험을 하는데,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 팀 선수와 만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 UCL에서 우루과이 공격수 다윈 누녜스(리버풀)를 상대한 김민재는 “누녜스는 공격할 때 든 수비할 때든 항상 적극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세리에A에서 경험한 경기의 템포 등 경험을 선수들에게 공유해 경기장에서 이행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특히 수비 라인과 여러 상황을 잘 공유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뛴 이강인은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모두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은데, 노련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도 잘한다”며 “특정 부분에서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대국 대표 선수의 ‘소속팀 동료’도 있다. 황희찬은 포르투갈의 미드필더 후벵 네베스, 마테우스 누니스와 같은 울버햄프턴 소속이며, 김민재는 우루과이의 수비수 마티아스 올리베이라와 나폴리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김민재는 “카타르로 오기 전에 올리베이라와 특별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 같은 조에 있는 만큼 한 명이라도 선수 분석을 더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동료들에게 장단점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축구 스타들 카타르에서 ‘라스트 댄스’

개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2022 카타르 월드컵은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 스타들이 격돌하는 마지막 전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카타르에서 ‘라스트 댄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세계적 축구 스타 10명을 선정했다. 2008년부터 한 차례만 빠고 발롱도르 수상을 양분한 ‘세기의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와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는 4년 뒤 각각 41세, 39세가 된다. 이번 카타르 대회가 사실상 두 영웅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다. 메시는 최근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서 공식전 18경기에 출전해 11골 14도움을 올리며 여전히 기량을 뽐내고 있지만,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마찰을 빚으며 주전 경쟁에서 밀린 모양새다. 유럽 최고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다투는 로베

메시·호날두·벤제마 등 4년 뒤에는 39~41세  
마지막 월드컵 무대 될 듯  
르트 레반도프스키(34·폴란드)와 카림 벤제마(35·프랑스) 역시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기에는 늦은 나이다. 두 선수의 기량은 최근 절정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여름 바르셀로나(스페인)로 이적한 레반도프스키는 리그 14경기에서 13골을 집어넣으며 ‘에이징 커브’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이끄는 벤제마는 한술 더 떠 지난날 생애 첫 발롱도르를 품에 안으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 선수’로 우뚝 섰다. 한때 최고 공격수 자리를 두고 이들과 경쟁했던

루이스 수아레스(35·우루과이)는 전성기보다 기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확률도 훨씬 높다. 브라질의 네이마르(30)는 같은 남미 스타인 메시나 수아레스보다 어리지만,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의사를 앞서 내비쳤다. 무려 64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웨일스의 공격수 개러스 베일(33)은 이번 카타르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37·크로아티아)는 이런 스타 중에서 가장 절치부심하는 선수다. 또 다른 스타 미드필더로 세르히오 부스케츠(34·스페인)도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2014 브라질 대회에서 우승한 독일의 킬리안 슈타인호프(36)도 다음 월드컵이 열리는 4년 뒤면 마흔이 돼 후배들과 한층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연합뉴스